

세계 경제 위기 속의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

- 상류 부문부터 하류로 영향 파급 중

세계 금융 위기(世界 金融 危機) 속에서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져 섬유 산업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경제 동향에 예민한 상류 업계로부터 먼저 급격히 나빠지면서, 중류(中流), 하류(下流) 업계로 파급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질적인 인도네시아 국내 총생산(國內 總生産 : GDP) 성장률은 2007년에 6.3%로 통화 위기 이후로는 최고를 기록하였다. 2008년에도 제 1사분기에는 6.3%, 제 2사분기에도 6.4%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제 3사분기에는 6.1%로 둔화하였고, 제 4사분기에는 5.9%까지 떨어졌다. 정부의 통년 속보(通年 速報)에는 2008년에 6.2%의 성장으로 나왔다. 2009년의 정부의 성장 전망은 2008년 10월에 책정된 정부 예산에서는 6%로 책정되어 있었다. 그 후로 급격히 환경이 변하는 데에 따라 예산 수정안에서는 5%로 낮추어 수정하였다. 각종 기관은 4%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외수(外需 : 外部 需要) 의존이 약 20%로 상대적으로 낮다. 2008년에는 연간(年間) 자동차 판매가 60만 7천대로 과거 최고를 기록하는 등 내수가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 자동차 판매도 2008년 10월부터 경기가 떨어지기 시작하여 2009년의 판매는 연간 30만 ~ 40만대로 반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8년의 인도네시아의 수출은 2007년과 비교하여 19.8% 증가한 1,367억 달러로 크게 늘어나 최고기록을 갱신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2008년 12월 1개월 동안은 2007년 12월보다도 20.6%가 줄어든 87억 달러로 떨어진 대조적인 결과를 나타내어 급격히 악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통화가 위기였던 1998년에는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3.1%까지 떨어져 32년에 걸친 수하르토 독재 정권이 무너진 경험을 겪었다.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통화 위기로 타격을 받았고, 구미로의 수출이나 구미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경제 위기에서는 당시와 같은 혼란은 없었는데 이는 그만큼 경제 체질이 강인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구미에서 시작되어 세계 전체가 나빠졌으므로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섬유 산업에서 금융 위기의 영향은 경기 동향에 예민한 원료 분야에서 제일 먼저 나타났다. 합섬 메이커나 면방적은 값이 비쌀 때 때 구입한 조원료(粗原料)나 면화 가격을 판매 가격에 전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요가 줄고 시세가 떨어졌다. 기업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대체로 30 ~ 40% 정도 감산(減産)되었다.

방직사는 호조였던 2008년 전반기의 가수요(假需要)로 파이프-라인(pipe-line : 中間 連結者) 재고가 많았고 세계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변화되어 일찌감치 나빠졌다. 면(綿) 카드사 30번수 시세는 2008년 7 ~ 8월에 1 고리(梱)에 540 ~ 550 달러를 정점(頂點)으로 400 달러 밑으로 급락하였다. 면 코머사 40번수도 480 달러까지 떨어졌다.

방적용 폴리에스터 스테이플 파이버도 1kg에 1 달러 30 센트를 피크로, 한때는 90 센트 밑으로까지 떨어졌다. 감산(減産)에 의한 재고 조정과 조원료가 다시 상승하여 93 ~ 94 센트로 현재는 조금 올랐다.

장섬유 직물은 원래 가수요가 없고 시즌(season) 상품이 성수기에 임박하여 발주되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9월의 리먼 쇼크(Lehman shock)에 따라 구미나 중동 수요가 줄어들어 2008년 말부터 감산이 확산되었다. 자동차 생산이 국내외에서 대폭 축소되어 호조였던 카시트(car-seat)지(地) 생산도 제일 큰 메이커의 경우는 단숨에 생산을 반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독자적인 차별화 상품(差別化 商品)의 히트나, 정확하게 시장이 바뀌므로써 풀(full) 생산이나 증수 증익을 이루고 있는 일본계 방직 기업도 여럿 있어 한 가지 색(色)으로만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